

예 배	일 시	장 소
주일예배	주일 오후 1시 50분	예배당
청년 큐티 나눔	금요일 오후 9시	Zoom
한민 말씀방	매일	카카오톡

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주일 예배 봉사위원

	04. 03	04. 10	04. 17
대 표 기도	정용현 집사	김영희 권사	김효종 집사
성경 봉독	정용현 집사	김영희 권사	김효종 집사

“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(히10:25)”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예배 안내 : YouTube에서 „브레멘 한민교회“ 검색하세요.

교회소식

3월 축복인사 - 위기를 견뎌낸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(성도 간에)
이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해(자신에게)

1. 사순절 기간(3월2일~4월14일) 동안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
2. 감사 -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3. 역 라마단 운동 - 라마단 기간(4월3일~5월2일)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.
4. 3월 생일 : 김한나 자매(7일) 한명희 성도(15일)
5. 코로나 대응 -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(Luca 확인)
교회 내 교제가 제한되고 있으나 성도 간 격려와 돌봄에 힘써 주십시오.



교회창립 | 1983년 10월 23일

교우동정

생일	

지난주통계

주일헌금	
감사헌금	
집 일 조	
선교헌금	
특별구제	
합계(Euro)	



담임목사 이 상 호 (Sang Ho Rhee)

예배반주 이 세 현

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
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
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믿음의 부요를 보이고
소망의 기쁨을 나누며
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

<http://www.brehanmin.de>

주일 예배 Gottesdienst 4.사순절

-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
 송 영 Chor 반주자
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
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(새번역) **다같이**
 찬 송 Gemeindelied 382장 **다같이**
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
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24 : 1 - 7(구p30) 김복자 권사
 (1.Moses 24:1-7)
 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 (새 가족 환영) 이상호 목사
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
 설 교 Predigt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! **이상호 목사**
 * 파송찬양 Gemeindelied **선한 능력으로** **다같이**
 * 축 도 Segnungsgebet **이상호 목사**
 * 송 영 Chor 반주자

***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†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.

† 다음 주일 기도 담당 : 정용현 안수집사

† 기도제목

1. 한 발 앞선 걱정보다는 그 시간에 더 기도하게 하소서
2.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
3.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
4. 김선택, 장보경(형가리)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

센 급류에 맞서는 법

아마존 강에는 보통 사람들이 헤쳐 나가기 힘든 급류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런데 아마존 강 유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러한 급류를 쉽게 헤쳐 나간다고 합니다. 한번은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과 함께 급류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"선교사님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가면 휩쓸리기 쉬우니 등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너십시오."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'급류를 헤쳐 나가기도 힘든데 돌까지 지고 가라니!' 라고 화를 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.

때로는 "살기 힘들고 바쁜데 신앙까지 잘 지키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" 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짐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결은 아마존 강의 급류보다 훨씬 더 거세기 때문에 맨몸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도 버겁습니다. 아무런 준비 없이 공연히 나섰다가는 급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. 그러기에 커다란 돌을 짊어져야 안전합니다.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지는 "명예(마11:29)"요 "십자가(마16:24)"라고 말하셨습니다.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. 그러나 이런 돌을 짊어지고 갈 때만이 비로소 험한 세상의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"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(마16:24)" 말하셨습니다.

설교보다 앞선 감동 / 김재중 목사

*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만, 책임을 회피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.

- Anon -